

THE 논술 연세대

◦ By Jack

Contents 목차

THE 논술 연세대_By Jack
The 논술_orbibooks.com

Part 1 _ 들어가면서

- 1. 책의 구성 및 내용 7

Part 2 _ Theory

- 1. 전형 분석 13
- 2. 논술고사 분석 18
- 3. 연세대 답안작성 원리 24

Part 3 _ Application

- 1. 2015 연세대 모의 인문 41
- 2. 2015 연세대 모의 사회 72
- 3. 2014 연세대 인문 106
- 4. 2014 연세대 사회 134
- 5. 2013 연세대 인문 164
- 6. 2013 연세대 사회 196
- 7. 2012 연세대 인문 224
- 8. 2012 연세대 사회 250
- 9. 2011 연세대 인문 278
- 10. 2011 연세대 사회 306

The 논술 연세대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Part 1

들어가면서

1 책의 구성 및 내용

1 책의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The 논술 시리즈 중 연세대편으로, 연세대 기출 문제와 그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Basic편의 일반적 논술 문제 풀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연세대만의 특별한 문제 풀이 원리를 적용시켜 문제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Basic편을 공부 하지 않은 학생은 먼저 Basic편을 공부하고 이 책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집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기에 충실한 기출 분석서를 만들 것.

많은 논술 강사들이 자신만의 답안 구조나 답안 작성원리를 내세우며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을 것처럼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문제가 원하는 것을 자신만의 구조와 자신만의 원리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을 통해 풀어낸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위와 같이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을 담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기출 분석서는 기출을 충실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여러 방향의 답안 작성원리를 보여주고 학생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 기출에 대한 해설을 최대한 자세히 실었고,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첨삭본들까지 실어 학생들의 근본적 논술실력의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둘째, 최대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 것.

어려운 기법이나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쉬운 원리와 표현으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도 단계를 최대한 여러 단계로 나누고 하나씩 순서대로 풀이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Basic편에서 배운 7가지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책을 쓸 것.

연세대편은 Basic편의 논제이해 - 개요 - 요약 - 비교 - 비판 - 논증 - 자료해석의 7가지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연세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연세대만의 특별한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할 것.

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원리를 모두 익힐 수 있도록 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연세대의 채점기준과 논술고사의 특성을 고려한 13가지의 원리를 제시한 부분은 연세대 논술고사 답안작성의 추상적 원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의 전형적 구조인 '삼자비교형' 및 2번 문제의 전형적 구조인 '해석 후 평가형'의 기본적 답안의 구조와 답안 작성원리를 자세히 기술한 부분은 답안 구성의 구체적 원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간접침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논술의 꽃은 침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침삭 때문에 학원에 다니곤 합니다. Basic편에도 밝혔듯이 이 책의 집필 의도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논술 책’을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각 기출 문제마다 5개씩의 학생 답안을 실었고, 이에 대한 침삭 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답안과 침삭본을 보며 간접 침삭의 효과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1 전형 분석

01 모집인원 (2016학년도는 입학전형 계획을 토대로 작성)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전체	정시인원	986명	991명
	논술인원	738명	683명 (55명, 7.5% 감축)
인문·사회 계열	정시인원	517명	505명
	논술인원	386명	341명 (45명, 12% 감축)
인문계열 모집 인원 (163명 -> 145명)		사회계열 모집 인원 (223명 -> 196명)	

	2015	2016		2015	2016
국어국문학과	12명	10명	자유전공	12명	폐지
중어중문학과	9명	8명	경제학부	47명	44명
영어영문학과	19명	17명	응용통계학과	15명	13명
독어독문학과	8명	7명	경영학과	73명	70명
불어불문학과	9명	8명	정치외교학과	22명	20명
노어노문학과	8명	7명	행정학과	21명	19명
사학과	12명	10명	사회복지학과	7명	6명
철학과	9명	8명	사회학과	10명	10명
문헌정보학과	8명	7명	문화인류학과	4명	4명
심리학과	10명	10명	언론홍보 영상학부	12명	10명
의류환경학과	3명	3명			

식품영양학과	3명	3명	
실내건축학과	3명	3명	
아동·가족 학과	6명	6명	
생활 디자인 학과	5명	5명	
교육학부	14명	12명	
스포츠 레저학과	2명	2명	
간호학과	10명	9명	
신학과	13명	10명	

‘더욱 더 치열해진 2016학년도 연세대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논술고사’

연세대는 2016학년도에 일반(논술)전형으로 2015학년도에 비해 55명 감축된 683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7.5%가 감축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선발인원 축소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인문, 사회계열입니다. 인문, 사회계열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수치는 12%까지 늘어납니다. 연세대가 논술전형 선발인원의 대부분을 인문, 사회계열에서 감축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자유전공학부까지 폐지하였습니다. 확실히 2015학년도에 비해 논술로 연세대에 입학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논술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연세대 2016학년도 입학전형계획에 따르면 인문, 사회계열의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341명입니다. 이는 정시모집의 약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연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정시모집만을 생각하며 수능공부만을 하는 것보다 논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입학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려대나 성균관대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적어보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학교에 비해 논술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는 점, 1학년 때 송도 캠퍼스에서 1년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다른 학교들보다 논술로 입학하기가 더 쉬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논술고사 시행일

2015학년도	2014. 10. 4 (토요일) 사회계열: 13:00 ~ 15:00 (120분) 인문계열: 16:30 ~ 18:30 (120분)
<p>연세대 논술전형의 경우 한양대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수능시험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2016학년도의 경우에도 수능 약 한달 전 토요일인 10월 3일 혹은 10월 4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에 수능 치기 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핑계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쟁자가 잘 없기에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반드시 붙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능 전에 실시하는 논술고사라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많은 학교의 논술고사가 몰려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학교들이 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 논술고사 전까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학교의 논술고사를 제대로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p>	

03 성적반영비율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교과	비교과	
70%	20%	10%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영역의 합 60이내 (탐구-2과목 중 상위 1과목 반영)

1) 교과(내신) 반영 방법

1학년 20% + 2학년 40% + 3학년 40%

삼수생 이상, 검정고시 출신자는 논술점수에 따라 학생부(교과+비교과) 점수를 부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20	19.8	19.6	19.4	19.2	19	18	16	12

2) 비교과 반영 방법

보통 대부분의 학생이 비교과에서는 10점 만점을 받기에 만점 기준만을 소개합니다.

출결 (5점)	봉사시간 (5점)
무단 결석 3일 이하일 때 만점	고교재학 중 총 봉사시간이 20시간 이상일 때 만점

비교과는 출석과 봉사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씩을 차지합니다. 출석은 무단결석이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점인 5점, 봉사시간은 20시간이 넘는다면 만점인 5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합격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비교과에서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경우 7등급까지는 크게 감점이 없습니다. 연세대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2~6등급인 것을 감안할 때 내신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내신이 1등급인 학생은 교과전형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5~6등급이라도 해도 2등급과 점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는 합격과 불합격을 절대 가르지 못하는 의미 없는 점수 차이일 뿐입니다. 연세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교과반영비율을 채택해왔고 2016학년도에도 당연히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은 거의 0%로 수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신이 안 좋다고 연세대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명목상 70%라고 나와 있는 논술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0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선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은 더욱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능성적으로 일정부분 당락이 결정되었다면 2015학년도부터는 최저기준을 맞춘 다수의 경쟁자들과 논술로써 한 판 붙어야 하기 때문이죠.

04 경쟁률 (2015학년도 논술고사 기준)

인문계열				사회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국어국문 학과	12명	528명	44	자유 전공	12명	571명	47.58
중어중문 학과	9명	378명	42	경제학부	47명	1906명	40.55
영어영문 학과	19명	866명	45.58	응용통계 학과	15명	667명	44.47
독어독문 학과	8명	355명	44.38	경영학과	73명	3208명	43.95
불어불문 학과	9명	403명	44.78	정치외교 학과	22명	1100명	50
노어노문 학과	8명	361명	45.13	행정학과	21명	1084명	51.62
사학과	12명	513명	42.75	사회복지 학과	7명	311명	44.43
철학과	9명	401명	44.56	사회학과	10명	564명	56.4
문헌정보 학과	8명	356명	44.5	문화인류 학과	4명	181명	43.25
심리학과	10명	637명	63.7	언론홍보 영상학부	12명	703명	56.33
의류환경 학과	3명	169명	56.33	<p>THE 논술 연세대편</p>			
식품영양 학과	3명	119명	39.67				
실내건축 학과	3명	126명	42				
아동·가족 학과	6명	255명	42.5				
생활디자인 학과	5명	237명	47.4				
교육학부	14명	645명	46.07				
스포츠레저 학과	2명	98명	49				
간호학과	10명	333명	33.3				
신학과	13명	216명	16.62				

연세대 인문논술의 평균적인 경쟁률은 40:1정도입니다. 표면적인 경쟁률만을 보고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2:1~3:1정도입니다. 일단 수능 최저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50% 이상입니다. 연세대가 다른 학교의 논술전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50%가 최저기준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제대로 연세대를 준비한 학생의 비중은 10%정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만 몰두하다가 수시모집기간에 ‘연세대니까 한 번 넣어봐야지.’ 정도의 마인드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종 경쟁률은 2:1~3:1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대로 논술을 준비해서 실질적인 경쟁자를 1~2명 정도만 이긴다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05 합격가능 논술점수 (2014학년도 기준)

단과대학	지원자		합격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과대	51.0	11.9	73.8	6.1
상경대	55.1	14.0	81.3	3.8
경영대	56.8	14.1	85.3	2.9
신과대	53.7	9.3	66.0	6.0
사회과학대	51.2	12.7	76.8	5.5
생활과학대	46.0	9.8	69.0	7.8
교육학부	52.3	10.8	71.0	3.5
체육학과	45.9	12.0	60.0	3.5
간호대	54.7	8.8	66.8	4.6
자유전공	57.6	14.8	82.6	4.3
합계	52.9	13.1	77.2	7.5
인문계열 합격평균점수	67.7점	THE 논술 연세대편		
사회계열 합격평균점수	81.5점			

표에서 볼 수 있듯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합격 평균 점수는 꽤 큼니다. 신과대, 체육학과를 제외하더라도 약 10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당락이 1,2점에서 갈리는 것을 상기할 때 지원 학과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사회계열에서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논술고사 분석

01 기본 개념 다지기

- 1 » 수험생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논술 문제를 모두 풀어봐야 한다.
- 2 » 연세대는 120분에 2문제를 출제한다.
- 3 » 연세대 논술고사는 각 문제 당 800~1300자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 4 » 연세대는 다면사교형 논술을 표방한다.
- 5 » 수험생은 2011년도 기출문제부터만 공부하면 된다.
- 6 » 연세대의 채점기준은 독해력,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이다.

02 인문계열 vs 사회계열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의류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학과, 아동·가족학과, 생활디자인학과, 교육학부, 스포츠레저학과, 간호학과, 신학과
사회계열	자유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보통 학생들은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시나 소설 등 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계열은 경제, 법, 국제관계 등 사회적 지식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세대가 인문논술과 사회논술을 나누어서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논술고사를 치러 오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임의로 인문과 사회계열을 나누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문과 사회계열 문제의 차이는 없습니다. 연세대 논술 출제 위원회는 인문과 사회의 구분 없이 두 문제를 출제한 후 인문과 사회계열에 문제를 배분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문계열에 지원한다고 인문계열 논술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계열의 논술도 같이 풀어보아야 합니다. 사회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연세대 논술의 기본적 구조



문제 1 »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 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연세대의 경우 120분에 2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은 네 개를 제시합니다. 1번 문제는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가), (나), (다) 제시문을 서로 다면적 관점에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는 (라)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1번 문제의 논의와 연관시킨 후 제시문 혹은 자료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각 문제는 50:5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04 문제 당 글자 수



‘3. 연세대 논술의 기본적 구조’ 에서도 볼 수 있듯 연세대는 각 문제 당 1000자 내외의 글자 수로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800~1500자 사이에서 답안을 작성하기만 하면 감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1300자 짜리 원고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800~1300자 내외에서 자유롭게 답을 작성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 3-2. '삼자비교형' 문제에 대한 답안의 기본적 구조 ● ●

예시답안

①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뭇 다르다. ②세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체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하지만 (나)는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의 태도를 드러내지만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④(나)는 늙은 암컷 고릴라가 죽은 후 다른 고릴라들이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들 고릴라는 어미고릴라시체를 계속 폭행했으며, 아들 고릴라가 쉬는 동안에는 다른 고릴라들은 그 시체를 건드리고, 털을 골라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고릴라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고릴라들은 지속적으로 사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암컷 고릴라가 그에 반응하여 다시 움직이기를 바랐다. ⑤(가)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로 인한 악취와 추악한 물골과 관련 있다고 한다.

⑥하지만 인간이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 (가)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 파악하는 반면에, (나)는 죽음을 기피하여 살아있는 자와 분리시키기 위한 행위라 파악한다. ⑦(가)는 인간이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 즉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장으로써 죽은 자를 산 자와 함께 두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⑧(나)는 인간은 부패를 그 악취와 추악한 모습 때문에 기피한다. 죽은 자의 시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인간은 죽음을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피는 현세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매장한다.

1. 문단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2. 문단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3. 문단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 ● 3-3. '삼자비교형' 문제에 대한 답안의 구성 원리 ● ●

1문단	본론 위주의 답안을 쓰길 요구하는 연세대의 채점기준에 비추어 볼 때 2문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단에 한 주제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연세대 채점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제포괄형 문장과 대주제설정형 문장으로 각 제시문의 공통적 원리를 밝혀준 후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론에서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을 적는 것은 채점자로 하여금 자신의 답안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 독창적 표현을 사용하여 창의력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통점인 대주제를 설정하는 이유는 연세대의 채점기준 중 독해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제(공통점)에 대한 근거를 생략한 것은 어차피 소주제(차이점)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답안의 대주제인 각 제시문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차이점을 드러내는 소주제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보십시오.)
2문단	2문단에서는 한 제시문을 먼저 두 제시문과 분리하여 비교하는 구성을 취했습니다. 세 제시문을 한 번에 비교하는 구성은 한 번에 논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을 하나씩 모두 비교하는 구성은 총 세 번을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1:2분리 구성을 취하였습니다.
③	두괄식 구성으로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하는 연세대 채점기준에 따라 두괄식으로 한 제시문을 두 제시문과 분리하였습니다.
④	논증력의 평가 대상이 되는 문장입니다. 항상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삼자비교형은 각 제시문의 논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각 제시문이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제시문에서 나와야합니다.
	근거와 더불어 다면적 사고를 보여주는 문장을 조금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2분리구성을 취할 경우 1에 해당하는 제시문은 더 이상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왜 두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한 제시문과 차이를 가지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③과 마찬가지로 논지파악형이므로 근거는 제시문에서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근거로써의 역할만하면 됩니다. 두 제시문의 내용은 3문단에서 1:1비교를 통해 자세히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3문단	2로 묶은 두 제시문을 비교하는 문단입니다. 결론 없이 본론위주의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연세대의 채점기준에 따라 결론 없이 각 제시문을 1:1비교한 후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⑥	두괄식으로 두 제시문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⑦	두 제시문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때 될 수 있으면 여러 기준을 넣어 다면적으로
⑧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2번 문제 풀이

THE 논술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

1) 전략 구상



아시다시피 연세대 논술고사 2번 문제는 1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제시문의 주장 혹은 자료의 내용을 평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해석형 문제는 여러 제시문을 종합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상기하며 본격적으로 전략을 구상해봅시다. 먼저 사회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요약의 원리와 논증의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다면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때 발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 규범에 여러 기준을 더할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 내부에서 여러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O				X			
사회규범	기준 A	기준 B	기준 C	사회 규범			
				기준 A	기준 B	기준 C	기준 D

그리고 다음에 제시문 (라)의 A국가와 B국가의 상황을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A국가와 B국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다)의 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을 사용해야 비교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가 사회규범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A국가와 B국가의 사회규범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The 논술을 통해 비교와 비판 혹은 평가를 하는 기준은 배웠지만, 분석을 하는 기준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상을 분석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분석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화된 비교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이는 다면적사고를 중시하는 연세대의 취지를 반영한 단어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되 이 과정에서 일반적 비교문제보다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면 됩니다. 여기에 부족하다면 융통성 있게 비판의 기준도 고려해도 됩니다. 분석이라고 하여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2) 개요작성 15~20문장 (13가지 기본적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 ●



예시 답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는 어디까지나 답안을 쓰기 전에 글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요는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문단 - 1문장

① 주제포괄형 문장

2015인문과는 다르게 자료만 추가된 문제가 아니라 특정 관점을 드러내는 제시문 (다)가 포함되었으니, 주제포괄형 문장을 넣어 채점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문단 - 3~5 문장 (적용 가능한 명제 이끌어내기 - 자료 평가의 기준)

- ②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다)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두괄식으로 제시
- ③ 그에 대한 근거

3문단 - 3~5 문장

- ④ A국 및 B국의 상황

4문단 - 6~8 문장

논지 파악이나 자료 해석이 모두 이 문단의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문장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다)의 논지로써 각 국가의 상황을 비교 분석.

●● 3) 제시문 (다)의 논지 파악 (요약 및 논증의 원리를 적용하여) ●●

<p>‘커피숍은 199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하며 1,400여 개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수화된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에 밀려 700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930년대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의학용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 판매,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시켰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다시 합법화시켰다.’</p>	<p>‘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커피숍’ 이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 를 의미한다.’</p>
<p>➡ 같은 국가라도 시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 4) 자료 해석 (종강약논) ●●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 - ‘규범’ 의 의의

(가-1)	‘규범’ 이 제 힘을 발휘할 때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가-2)	‘규범’ 은 사람들의 사고를 경직시키므로 혁신을 가져오기 어렵다.
(다)	‘규범’ 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대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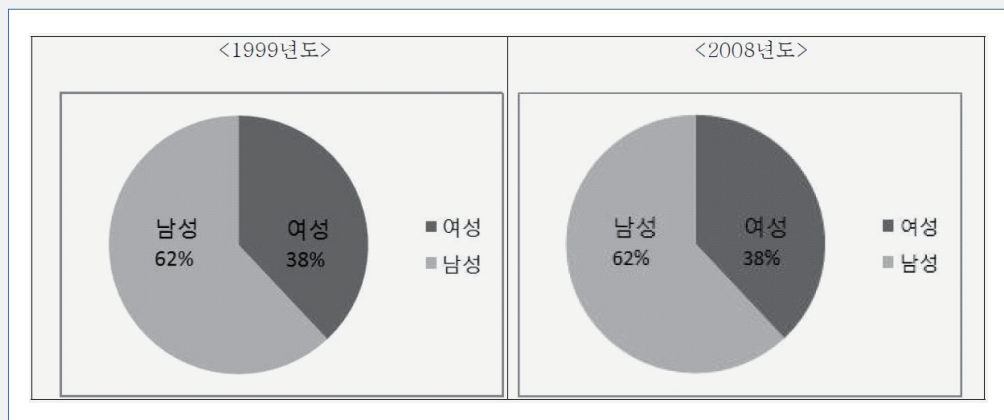
이렇게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와 각 제시문의 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통 주제	(가-1)	(가-2)	(다)
제시문(라) 자료의 해석기준	자료의 무엇이 규범을 의미 하는가	그 규범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가 아니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가		그 규범이 국가와 시대에 따른 상대 성을 지니는가

[A국가]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709	801	991	998	906	1,009	1,001	994	1,011	1,005
사법 시험 지원 현황	남자	587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여자	122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여성 비율 (%)	17.2	18.9	17.5	23.9	21	24.4	32.3	37.7	34	38	

[B국가]



제시문 (라)는 A국가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년간 성별에 따른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국가의 1999년과 2008년의 성별에 따른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국가에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1999년 17.2%에서 2008년 3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달리 B국가에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1999년과 2008년 모두 38%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비교 분석 및 평가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위의 국가별, 시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 및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규범이란 남녀의 성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에서 보자면, 1999년을 기준으로 A국가는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17.2%에 불과하지만, B국가는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무려 38%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성역할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시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에서 보자면, 1999년을 기준으로 17.2%에 불과했던 A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로 크게 높아진 것을 볼 때, 같은 국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자면, B국은 1999년에 이미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므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B국은 처음에는 A국보다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이 높았지만 이후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A국은 17.2%에서 10년간 38%까지 지원율이 높아졌으므로 향후 B국의 지원율을 따돌리고 더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 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 5) **답안 작성** (논증, 요약의 재구성 및 중립적 표현의 원리와 결합하여) ● ●

<p>1문단</p>	<p>사회규범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 규범을 탈피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p>
<p>2문단</p>	<p>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p>
<p>3문단</p>	<p>제시문 (라)는 A국가와 B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의 관점에 부합한다. 첫째, 1999년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17.2%에 불과한 반면 B국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무려 38%에 이른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는 같은 시기에도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1999년 17.2%에 불과했던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p>
<p>4문단</p>	<p>위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A국 여성의 사법시험지원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미 B국이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가 필요하거나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의 성장은 38%가 한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38%를 기록한 A국도 한 동안 정체를 맞이하거나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지원율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B국은 A국보다 먼저 38%를 기록했으나 변화 없이 10년간 이 비율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A국은 비록 B국보다 늦은 시기에 성역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어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B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p>

6) 문제 총평



제시문 (다)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한 규범이 문화 혹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나라에 존재하는 규범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참조하면 제시문 (라)를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먼저 A국가와 B국가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나라마다 다름을 추론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A국가와 B국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사법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B국가에서보다 A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B국가와 A국가에서의 성에 대한 규범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A국가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 국가의 사회적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논증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적 행위를 부추기고 이와 같은 행위의 반복적 수행과 축적이 사회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04 답안의 경향 및 그에 대한 평가

1) 전체적 경향 및 그에 대한 평가



문제 1은 언어생활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일탈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상을 규범(준수, 혹은 일탈)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문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제시문 (나)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학생들이 많았다. 제시문 (나)에 열거된 언어 현상을 분류한 결과를 사회적 규범의 문제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학생들도 많았다. 학생들의 답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분류한 뒤 분류 항목 각각을 제시문 가-1과 가-2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제시문 (나)가 제시하는 언어 변화 현상의 유형을 모두 일탈로 파악하고, 그것을 규범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논한 경우이다. 그런데 규범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한 양비론에서 논의가 그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한 경우, 혹은 논리적 비약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 없이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 머문 답변도 많았다.

문제 2는 제시문 (다)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시문 (라)의 내용을 분석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 2가 요구하는 것은 규범의 시간적, 공간적 다변성을 이해하고 그 틀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한 취지를 파악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예컨대 제시문 (다)에 대한 요약과 제시문 (라)에 대한 해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실패하였다. 즉 여성의 직업 선택의 문제를 사회적 규범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제시문 (라)의 통계 수치를 분석하기만 하고 이것을 사회적 규범의 문제와 적절히 연결시켜 해석하지 못했다. 또한 제시문 (라)의 통계 수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비약을 보이거나, 근거 없는 추론 내용을 담고 있는 답안도 종종 눈에 띄었다.

05 학생 답안 탐색본

● ● 1) A학생 답안 ● ●

[문제 1]

<p>1문단</p>	<p>공감이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가)와 제시문 (나),(다)는 공감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p> <p>Ⓢ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공감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제시문 (가)는 공감적 태도를 보이나, (나)와 (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공감이란 상상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제 설정추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냄, 문제에 나와있는 공감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수정)</p>
<p>2문단</p>	<p>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공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아이히만에게 있어 공감적 태도는 유태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지어는 국가적 명령이 유태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히만의 증언은 공감적 태도의 결여를 보여준다.</p> <p>Ⓢ 공감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인식했던 안했던 학생은 삼단논법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서술방식이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아이히만이 유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근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p>
<p>3문단</p>	<p>반면에 제시문(나)의 시적화자는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터 속 비둘기는 포스터에 갇혀 본래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시적화자는 비둘기의 습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비둘기가 노닐던 지붕마루의 쓸쓸함을 알고 마셔볼 공기와 날아갈 하늘이 없다는 비둘기에 대해 안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는 화자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한다.</p> <p>Ⓢ 아주 좋습니다. 위에서 말한 문제점이 이 문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p>
<p>4문단</p>	<p>제시문(다) 역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공감적 태도를 보인다. 뤼카온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하여 아킬레우스는 나 또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며 뤼카온에게 일부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다)의 뤼카온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공감의 방식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뤼카온의 죽음의 공포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뤼카온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킬레우스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감정에서는 공감을 보이지만 정작 뤼카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중심에서 공감했다면 뤼카온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죽음으로 대우했다. 즉 아킬레우스는 진정한 공감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p> <p>Ⓢ (나)와 비교되는 (다)의 아킬레우스의 공감 태도를 잘 짚었고, 그에 대한 근거도 설득력 있습니다. 좋은 답안입니다.</p>

[문제 2]

1문단	<p>공감이란 단순히 타자의 상태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러한 감정적 공감이 직접적인 행위로 나타나야한다고 본다.</p> <p>⊕ 처음에 두괄식으로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으나 싶습니다.</p>
2문단	<p>이러한 측면에서 상상은 공감을 유발하는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신적으로 그려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감이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타자에게 존재하는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라)에서 워딩턴은 살의를 품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타자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상상을 통해 공감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p> <p>⊕ '공감은 직접적 행위로 나타나야한다. 상상은 공감을 유발한다.' 라는 문장은 논리력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글을 적으려고 했다면 첫 문단에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한 후 '이러한 측면에서 상상은 공감의 시작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공감이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타자에게 존재하는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은 어색합니다. 지나치게 긴 관형어의 사용을 주의해야합니다.</p>
3문단	<p>상상을 통해 공감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주체적 공감이 필요하다. 주체란 타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행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이 단순히 타자의 이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공감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증인의 말대로 아무리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할지라도 주체성의 결여는 공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시문(다)의 역시 마찬가지로 아킬레우스가 공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한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 글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마 학생이 '주체' 라는 단어가 제시된 것을 보고 답안에 넣기는 했으나,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주장은 상상을 통해서 공감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공감이 주체적인 성격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써 아이히만을 제시한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은 상상을 통해서 공감에 나가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공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1번 문제에서 아킬레우스는 '자기중심적 공감' 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적지 않았었나요?</p>
4문단	<p>상상을 통해 공감을 하고 주체를 통해 공감을 직접적 행위로 행했을지라도 폭력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공감의 행위로 이어져서는 않된다. 폭력이란 남에게 물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공감의 행위가 이와같은 폭력적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라)에서 워딩턴은 마음속에서 복수, 분노와 같은 폭력적 행위를 상상하였다. 만약 이러한 폭력적 분노 복수가 행위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워딩턴은 폭력대신 용서의 행위를 통해 공감을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 시각을 뛰어넘는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p> <p>⊕ '않된다.' 는 어문규정에 어긋납니다. '안 된다.' 로 고치십시오. 그리고 '폭력이란 남에게 물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과 공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폭력의 정의를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흠잡을 데 없습니다.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적절합니다.</p>

총평	1번 문제를 잘 적어서 큰 기대를 하고 2번을 보았으나, 2번에서는 실망이 컸습니다. 전형적 문제인 1번은 잘 적었으나, 비전형적인 2번 문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응용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문제에 대한 유형 적응력만 키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옮기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문제 1	문제 2
	<i>AO</i>	<i>C-</i>

● ● 2) B학생 답안 ● ●

[문제 1]

1문단	<p>공감이란 다른 이의 상황이나 상태 및 감정을 본인과 동기화하여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은 공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p> <p>⊕ ‘동기화’ 라는 단어는 사실 IT기계를 이용할 때 자주 쓰지 않나요^^? 무슨 의도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문맥에서 ‘동기화’ 라는 단어는 어색합니다. 그냥 최대한 쉬운 단어로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물론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려했다는 점은 좋습니다. 공통점으로 대주제를 설정하고 두괄식으로 어떠한 점에서 공감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가 드러나는지를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p> <p>‘공감이란 다른 이의 상황과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나)는 공감을 드러내는 반면에 (가)와 (다)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2문단	<p>우선 제시문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국가의 명령에 의한 의무감으로 지시를 따랐고 이는 명령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않아, 죽는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동질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유대인을 죽이는 데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들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명을 받들었다는 변명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꾀하고 있다.</p> <p>⊕ 잘 썼습니다만 불필요한 중복적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간 듯합니다. 이 문단에서 알맹이는 아이히만은 공감하지 못했고, 그 근거는 국가의 명령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상황을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짧고 간략하게 쓰고 차라리 다른 관점에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p>

3문단	<p>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에서의 시적 화자는 비둘기의 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소 공감한다. (나)에 의하면, 시적 화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과거에 누리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답답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매우 안타까워한다. 이는 타자의 심정에 대해서 본인의 일과 같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정의와 일치한다.</p> <p>➔ '다소' 라는 표현은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뒤에서 '공감하고 매우 안타까워한다' 라는 문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p>
4문단	<p>(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보면,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보이는 태도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둘 다 결국엔 죽는다고 말한다. 이는 타자와 나를 동일화 하는 공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결국에 뤼카온을 죽인다.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본인도 죽을 운명이고, 그대도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라면서 그것이 지금임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운명에 의한 죽음의 합리화를 이뤄낸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이다. 뤼카온이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선사한 것은 전체로 보면 뤼카온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p> <p>➔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태도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 '공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온 발언',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 등의 문장이 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대해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완전한 공감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하여 글을 완성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5문단	<p>다시 말해,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가)의 아이히만 태도하고도 매우 유사하다. 둘 다 타자의 공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가)에서는 국가의 명령, (다)에서는 운명을 그 근거로 대고 있다. 또한, (가)와 (다) 모두 본인들의 행위, 즉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가)에서는 국가의 명령은 의무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따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국가의 명령이 절대적임을 암시한다. (다)에서는 운명이라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즉, 둘 다 본인의 행위가 불가피함을 역설한다.</p> <p>➔ 이 문단에서 크게 눈에 띄는 오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와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인데, 이 둘을 한 데 묶어서 정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면사고형을 표방하는 연세대 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p>

[문제 2]

<p>1문단</p>	<p>사람은 항상 이성적일 수 없으며 감성의 영역도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은 이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악한 행위이며, 정당화되기 어렵다. 폭력에 대해서는 행하기 전에 이성의 영역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상상을 해 보지 못하거나, 상상을 했더라도 해도 결국에 폭력을 행한다면, 이는 사회에서의 보편타당한 논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 주체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상상해보는 여부 및 폭력을 행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두 가지 기준이다. 상상을 통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고 및 폭력을 이행하지 않음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p> <p>⊕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폭력이 일어나므로 이를 이성으로 제어해야한다는 논지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갑자기 감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을 통해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논지로 이어지는데, 이는 큰 오류입니다. 불필요한 문장도 많고,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제대로 알기 힘들어서 나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글을 토대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상상과 비폭력성이 바로 그 두 가지이다. 상상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을 제어해야 진정한 공감에 이를 수 있다.’</p>
<p>2문단</p>	<p>제시문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폭력의 주체로 유대인을 학살한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즉 상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히만은 그저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이는 폭력을 완전히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인의 행위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았고,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p> <p>⊕ ‘학생은 아이히만이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만 명확하게 드러낸 후 첫 번째 조건이 결여되어 공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만 간단명료하게 적으면 되는데 불필요한 중복적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라는 단어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p>
<p>3문단</p>	<p>제시문 (다)에서의 아킬레우스는 폭력의 주체로 뤼카온을 살해한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 둘 다 결국엔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 공감한다. 또한 본인이 뤼카온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이라는 첫번째 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뤼카온을 살해한다. 이는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만, 결국에 운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뤼카온에게 죽음을 선사한다. 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킬레우스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상상은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p> <p>⊕ 혼란스러운 부분은 1번 문제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공감했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공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써져 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는 설득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p>

4문단	<p>제시문 (라)에서의 심리학자 에버렛 워딩턴은 강도에 의한 끔찍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복수심으로 폭력의 주체가 되어 강도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해 본다. 즉, (라)에서의 폭력의 주체는 에버렛 워딩턴이 된다. 그러나 그는 상상을 통해 본인의 폭력적인 성격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통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인 또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이 폭력적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용서를 통해 본인의 죄성과 폭력적 성격에 대해서 신앙적 용서를 받고, 강도에 대해서 본인이 용서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통해 강도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에버렛 워딩턴은 복수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고, 용서를 통한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이는 곧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p>	
	<p>➡ 그러나 괜찮은 문단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주체' 라는 단어는 어디로 갔나요?</p>	
총평	<p>기본기가 부족합니다. 쉬운 문장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는 연습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두괄식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p>	
평가	문제 1	문제 2
	<i>C+</i>	<i>DO</i>

● ● 3) C학생 답안 ● ●

[문제 1]

<p style="text-align: center;">1문단</p>	<p>제시문 (가), (나), (다)는 크게 타인에 대한 공감 여부로 나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한 반면, (나)와 (다)는 타자에게 공감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태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와 (다)는 비둘기와 뤼카온에 대한 공감을 보여준다. (나)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생명력이 결여된 안타까운 존재로 여긴다. (다) 또한 뤼카온의 입장을 이해하며 아킬레우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와 (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나)는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반면, (다)는 뤼카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공감한다. (나)에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비둘기의 생명력이 존재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마서 볼 공기가 없다’ 고 말하며 비둘기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다)는 자신도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뤼카온에게 일종의 위로를 건넨다. 즉, 자신과 뤼카온을 동일시하며 뤼카온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다.</p> <hr/> <p>⊕ ‘나뉠 수 있다’ 는 ‘나눌 수 있다’ 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답안의 구조는 좋습니다. 그리고 (가)의 아이히만이 공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도 간결하여 좋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보입니다. 이는 독해력의 문제로 보이는데, (나)가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자신과 동일시하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공감을 구하고 공감의 절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라이팅이 필요한 답안이라 보여집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문단</p>	<p>이러한 비교로 보아,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뤼카온에 대한 완벽한 공감이다. (가)는 유태인에 대한 공감조차 못하고 있다. (나)는 비둘기에 대한 공감은 이뤄지지만 그건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의 공감이다. 자신이 비둘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 혹은 자신이 비둘기라는 생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과 달리, (다)는 나 또한 훌륭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한다. 이로 보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을 뤼카온에 대체한 표현을 통해 공감함으로써 세 제시문 중 가장 완벽한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hr/> <p>⊕ 위와 마찬가지로 독해력의 문제로 다시 문제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본 후 적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문제 2]

<p>1문단</p>	<p>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감은 상상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용서의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였으나, 강도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워딩턴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폭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워딩턴은 그들을 용서한다. 이는 타인의 입장이 되는 상상을 통해 그들에게 공감하게 된 예를 보여준다. 즉, 주체가 되는 상상을 통해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p> <p>➡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의도는 알겠으나 어색합니다. 차라리 '타인을 자신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라)의 워딩턴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자신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고 폭력성을 제어했으므로 '상상', '주체', '폭력'의 개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p>
<p>2문단</p>	<p>또한 공감은 주장 그대로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제시문 (다)를 보면 아킬레우스가 모두는 죽을 운명이라고 뤼카온에게 위로를 건네며, 운명론적 사고를 통해 뤼카온에 공감한다. 이에 뤼카온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죽게 된다. 이렇게 타인의 주체가 되어 공감하려는 노력은 타인의 공감 또한 이끌어내며,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이 또한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p> <p>➡ 1번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잘못된 답안이 나왔습니다.</p>
<p>3문단</p>	<p>따라서 타인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테인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유테인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검사 또한 아이히만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그를 공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히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될 수 없다. 또한 그가 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강력한 힘이 그를 압박했음에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이성적으로만 행동했기에 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이로 보면, 타인의 주체가 되어 보려는 노력을 통해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아이히만조차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p> <p>➡ 아이히만에 대한 공감이라는 내용은 신선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히만이 드러내는 태도만을 신경 쓰는데, 이 학생은 역으로 아이히만에 대한 공감을 생각해보았다는 점은 굉장히 높이살만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이야기는 '사족'인 것 같습니다. 검사는 유테인에 대해 더욱 공감한 것이고, 직업상 범죄자에게 공감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p>

<p>총평</p>	<p>독해력의 부족이 눈에 띈다. 자신의 생각을 사회 평균인의 이성에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번에서 아이히만에 대한 공감을 기술한 것은 참신하여 좋았습니다.</p>	
<p>평가</p>	<p>문제 1</p>	<p>문제 2</p>
	<p>C-</p>	<p>C+</p>